

Did Job Repent?

욥은 회개하였는가?

Krüger, Thomas. "Did Job Repent?" Pages 217-29 in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Edited by T. Krüger, M.Oeming, K.Schmid, and C.Uehlinger.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7.

문제제기

욥기 42:6에는 해석(번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단지 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42:6 전체의 단어와 그 표현방식이 명료하지 않다. 따라서 학자들의 번역과 해석도 일치하지 않는다.

עַל־כֵּן ① אָמַס ② וְנִחַמְתִּי ③ עַל־עַרְפִּי וְאָפַר: פּ (욥 42: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개역개정)

크뤼거의 목표는 이 구절을 욥기 전체의 신학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현대 성서의 번역과는 다르게 해석(번역)하고, 그것의 당위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1) 이 구절이 사본들로부터 번역상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2) 단어와 표현방식, 그리고 시제의 문제로 나누어서 분석하여 해석의 다양성을 제안하고, (3) 대다수의 번역과는 다른 해석(번역)을 제안한다.

고대의 사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였는가?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들을 두고 최근의 학계에서는 이 구절이 수사학적인 장치라고 보고있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번역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독자에 의해서 평가받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번역들 뿐 아니라, 고대 역본들에서도 서로 다르게 이 구절을 해석한다.

Ⓛ *idcirco ipse me reprehendo et ago paenitentiam in favilla et cinere*

"그러므로 나는 제 자신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 διὸ ἐφάυλισα ἑμαυτὸν καὶ ἐτάκην, ἡγγημαι δὲ ἑμαυτὸν γῆν καὶ σποδόν.

"그러므로 나는 가치없고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이제 내 자신이 티끌과 재처럼 여겨집니다."

두개의 번역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 번역들 뿐 아니라 탈굼과 페쉬타와 같은 성서의 미드라쉬적인 번역본들도 번역상의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가운데에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따라가려고하는 노력한 번역도 있고, 또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확대해석되거나, 해석된 의미의 다른 단어들도 대치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욥 42:6에 관한한 어떠한 경우에도 대표적 고대의 사본들간에 일치된 번역은 없다.

고대 사본들 간의 시제의 문제

히브리어 본문은 현재/미완료 시제이다. 그러나 LXX에서는 처음 두 동사는 완료 시제로,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 시제를 채택하였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과 현재의 자기의 고백을 모두 담고 있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크뤼거는 나중 문장 ("이제 내 자신이 티끌과 재처럼 여겨집니다")이 LXX 번역자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면, 히브리어 현재/미완료 시제를 LXX는 과거시제로 이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나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페쉬타의 경우는 모두 미완료로 이해하였다. 특별한 것은 두번째 동사인 וּנְחַמְתִּי를 죽은 자의 부활의 개념으로 발전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어근 נחם과 같은 어근의 시리아어를 등치시킨 해석의 결과이다. 크뤼거는 אַמַּאם를 "잠잠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욥 40:4-5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한다.

מקראות גדולות מטול היכנא מאסית עותרי ואתניחמית על בניי דהנון עפר וקטם

"그러므로 나는 나의 부(富)를 한참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티끌과 재같은 나의 아이들에게 닥친 일들을 위로받았습니다."

מקראות גדולות (미크라웃 그들룻)은 시제를 모두 완료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욥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 하찮은 것임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닥친 일들의 위로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기의 재산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다.

Ⓚ למשמע אדן שמעתך וכען עיני חזתך. על כן אתנסך ואתמהא }אואהוא לעפר וקטם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는 티끌과 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삿 13:22) Ⓚ은 모두다 미완료시제로 번역을 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고대 사본과 번역본들이 욥 42:6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과 표현하고 있는 시제들을 얼마다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가하는 실례들은 해석자의 주관에 배제된 객관적이 해석(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뤼거의 목표

크뤼거의 글의 목적은 욥기 42:6의 각 단어들의 용례와 그 의미를 찾아내어서 욥기 전체의 신학적인 구조에 근거한 해석(번역)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욥 42:6은 문장에서 어떠한 문제점들과 해석상의 모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크뤼거는 (1) 동사의 어근을 무엇을 보는가의 문제 (אמאס), (2) 어근 ם"נח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전치사 על의 해석의 문제 (ונחמתי על), (3) 전치사 על의 목적어로 사용되어진 וּפָר וּפָר의 의미, 그리고 (4) 어떤 시제로 문장을 이해해야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אמאס

대다수의 성경들이 אמאס를 "뉘우치다" "회개하다"로 번역한다.

עַל-כֵּן אִמַּאס וְנַחַמְתִּי עַל-עֲפָר וְאֶפְרָ: פ (욥 42:6)

그러나, אמאס의 번역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어근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אמאס의 어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단어의 어근은 (1) ם"א "거절하다", "싫어하다", "회개하다" 로도 분석할 수 있고, 또 (2) ם"מס ם"א "취소하다" "죽다" "사라지다" 라고도 분석할 수 있다.

אמאס의 어근을 ם"א로 보았을 때에 "뉘우치다", "회개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1) 그렇다면, 욥 1:22에서도 말하듯이 그간의 욥에 대한 이야기에 비추어 왜 욥이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2) "거절하다"라는 번역도 매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동사를 ם"א의 1인칭 פעל 미완료형의 타동사로 생각한다면, 목적어가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찾을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사전상의 의미를 근거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은 번역들이 가능하다:

1. 나는 티끌과 재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말이 되든, 안되든 간에) ט"ממ
2. 나는 이전의 나의 생각과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ט"ממ
3.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격양된 마음을) 가라앉히겠습니다. ט"ממ

*진한 글씨는 히브리어의 본문에는 없으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

נחמתי

ט"ממ 의 1인칭 נחמתי형인 נחמתי는 "위로하다" 또는 "마음을 스스로 위안하며 누그러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치사 על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에는 "~을 후회하다", "~인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또는 "~대해서 마음을 자위하며 누그러뜨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같은 번역들이 가능하다:

1. 나는 티끌과 재를 위로칩니다 (말이 되든, 안되든 간에)
2. 나는 이전의 나의 생각과 말을 티끌과 재에서 위로칩니다.
3. 티끌과 재에 대해서 제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말이 되든, 안되든 간에).
4. 나는 내 마음을 티끌과 재 위에서 누그러뜨립니다.
5. 나는 티끌과 재 위에서 위로칩니다.

*진한 글씨는 히브리어의 본문에는 없으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

עפר ואפר

창세기에서는 이 표현이 인간 존재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었다.

(창 18:27) וַיַּעַן אַבְרָהָם וַיֹּאמֶר הֲנִהְיֵה נָא הוֹאֵלְתִּי לְדַבֵּר אֶל־אֲדֹנָי וְאַנְכִי עֹפֵר וְאַפָּר: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또, 동시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욘 30:19) הֲרֵנִי לְחֹמֶר וְאַתְמִשָּׁל בְּעֹפֶר וְאַפָּר: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비록 עפר ואפר의 완벽한 모양을 갖춘 표현방법은 아니지만, 티끌은 인간의 슬픔을 표현하는 제의식적인 행위의 함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וַיִּשְׂאוּ אֶת־עֵינֵיהֶם מִרְחוֹק וְלֹא הִכִּירוּהוּ וַיִּשְׂאוּ קוֹלָם וַיִּבְכוּ וַיִּקְרְעוּ אִישׁ מְעָלוֹ וַיִּזְרְקוּ עֹפֵר עַל־רֹאשֵׁיהֶם הַשָּׁמַיְמָה:

(욘 2:12)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읍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재는 회개의 행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욘 3:6) וַיַּעַן הַדָּבָר אֶל־מֶלֶךְ נִינְוָה וַיִּקָּם מִכְסָּאוֹ וַיַּעֲבֵר אֶדְרֵתוֹ מֵעָלָיו וַיִּכַּסּ שָׂק וַיֵּשֶׁב עַל־הָאֶפֶר: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לְקַטֵּל וְלְקַטְּלָהּ

히브리어에서 לְקַטֵּל 과 לְקַטְּלָהּ 현재의 상태뿐 아니라, 미완료의 미래를 모두 지칭한다. 그러므로 욥 42:6은 과거형이나, 현재형보다는 미완료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크뤼거의 해법

크뤼거는 מִנְחָה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여러가지 뜻을 조사하기 보다는 욥기에서 사용된 מִנְחָה의 용례들을 조사하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연구하는데, 욥기에서는 일관되게 מִנְחָה이 "위로(위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נִחַמְתִּי를 "나는 위로(위안)을 받습니다"라고 번역한다. 성서에서는 מִנְחָה 다음에 עַל이라는 전치사 따라올때에 "~에 대해서"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עַל 다음에는 위로를 받아야하는 사람이나 누그러뜨려야하는 대상이 나온다(출 32:12; 삼하 13:39; 대상 19:2; 21:15; 시 90:13; 사 22:4; 렘 8:6; 16:7; 18:8,10; 31:15). 하지만, 욥기에서는 עַל 다음에 위로를 받아야하거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하는 대상이 나오질 않는다. '~에 대해서'라는 번역보다는 '~위에서'라는 번역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듯하다. 그러나, 크뤼거는 욥 42:6의 경우를 성서에서 עַל נִחַמְתִּי의 공식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경우로 보지 않는다. "나는 재 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עָפַר וָאֶפֶר를 "욥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도 위안을 받습니다"라고 해석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크뤼거는 אֲמָא에 대해서, 어근을 מִמָּא로 볼 것이 아니라, מִמָּס의 נִפְעַל형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מִנְחָה과는 달리 מִמָּא는 욥기에서 여러가지 용례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약해지다", "경멸하다", "거절하다"인데, מִמָּא의 경우 목적어를 필요로하지만, מִמָּס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욥기 42:6에서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אֲמָא의 어근을 מִמָּא로 보는 것보다는 מִמָּס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크뤼거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크뤼거는 욥 42:6을 "그러므로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도 위안을 받습니다"라고 번역한다.

크뤼저 번역의 해석상 타당성

그렇다면 이러한 번역이 어떻게 가능할까?

1.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2.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3.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4.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5.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뵈웁니다.
6. 그러므로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도 위안을 받습니다

욥 6:8-10; 13:15-16; 19:25-27이 이 질문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들이 된다. 각각의 구절에서 욥은 일관되게, 자신의 처지가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함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욥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욥은 위로를 얻는다. 비록 욥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봄으로 위로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경건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때에, 욥의 죄를 파헤치는 고발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욥 6:4 이하), 하나님이 증거삼기 위해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다 (욥 16:8이하).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영원히 조종하시는 분도 아니고, 속좁은 사람처럼 인간을 벌하시는 분도 아니다(욥 7:17-18). 하나님은 재판장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 (욥 9:14-20). 욥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불평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욥은 3절에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말하였다"고 고백한다.

이유없는 고난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욥이 회복되는 이유는 회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없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처럼, 욥이 회복되는 것도 댓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욥을 회복시키실 때에는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로의 말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크뤼거는 욥기는 욥이 최후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죄없는 사람과 이유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통찰을 한 것이 아니라 (처세술), 이러한 통찰을 가지게 되었기때문에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욥기의 신학은 잠언의 신학과도 맞아떨어진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급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 28:6)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 가난 중에 허덕이고, 악한 사람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현실인식이기 때문이다. 잠언과 욥기 모두가 의로운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리고 회개를 필요로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통찰을 가지고 있다.

욥기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포로전기와 포로기의 예언자들과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러한 신정론(Theodicy)의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세상을 인간이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세상에 폭력과 부조리가 난무하게되었다는 결론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포로기의 이스라엘의 신학의 주요한 흐름이었다. 욥기는 이 신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포로기의 신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의 신학을 모든 일상생활에 대입하여서 판단하는 것을 거부한다.

무고한 사람에게도 부당해 보이는 고난이 있다는 욥기의 신학과 고난이 반드시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욱기의 신학은 욱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지 받지 않을지를 고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얻든 얻지 못하든 간에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